



TL: 乾隆辛未秋獮. 塞上蒙古台. 吉必力滾達賴. 以此來獻. 色純白如雪. 目睛如丹砂. 抱朴子稱鹿壽千歲. 滿五百歲則色白. 此殆其類. 今年恭遇聖母皇太后六旬萬壽. 適靈獸應時而至. 爰命曰瑞麇. 而紀以詩:

質稟庚辛色. 珠躔應壽星. 天心慶花甲. 德產祝慈寧.
豈意牲牲屬. 偏成騫騫形. 乍辭鹿食野. 可比鳳儀庭.
性自仙人馴. 圖呈動物靈. 無須稽獸譜. 永此驗祥經.

BR: 臣郎世寧恭繪



건륭제 다록도

피서산장에서 사슴이 서서 노는 것을 보고, 그 근심 없이 여유로운 모습을 즉시 그려냈다. 또한 사슴은 늙지 않는 짐승이니, 이 그림을 족자로 만들어 어머니가 계신 자녕궁에 올려 장수를 기원하였다.



穿古仗將軍巴雲阿美
 遠東海使使都所差則
 鹿鹿有載似牛種鹿則
 馬依福於人乃天區之具
 秋舍性則仍廣之厚也
 造物神其無所不有命
 繪以圖而祭之詩
 我聞方蓬海中仙人來
 性騎白鹿然觀未嘗七兒之
 臥長迴矣鹿鹿性陰天日
 浪浩茫：浮赤我報舞鳥
 鹿其民太古區太古山區居
 宜宜衣報此東人化蹟有使
 到以刺鹿取自由拍之即
 末鹿之不御驚：效需可
 報性在臺宜鳴作鳥不性
 而谷管與接頂向報掛七
 星符香及暗：兩時錄掛
 必奉能首不加運噴鹿
 秋霜銀丹青昔滿古相圖
 鹿蹄乙丑楊月望謹一
 御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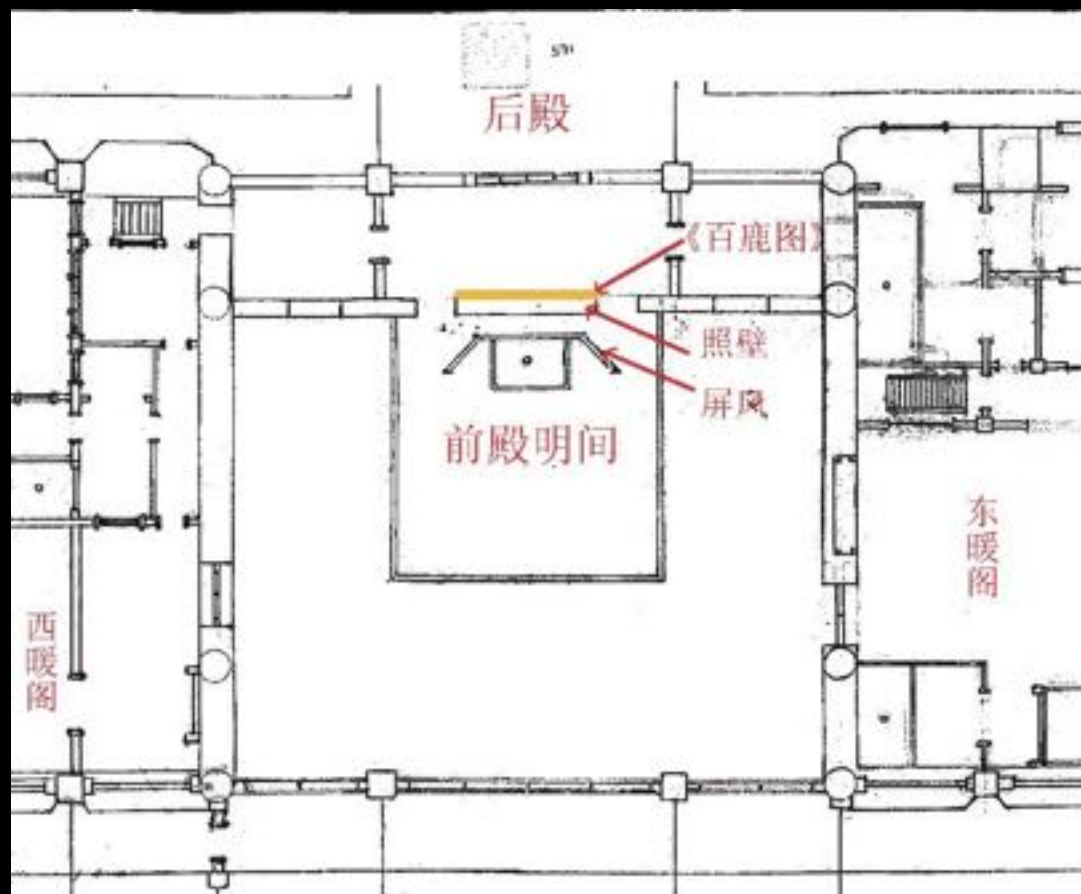


1745 동해순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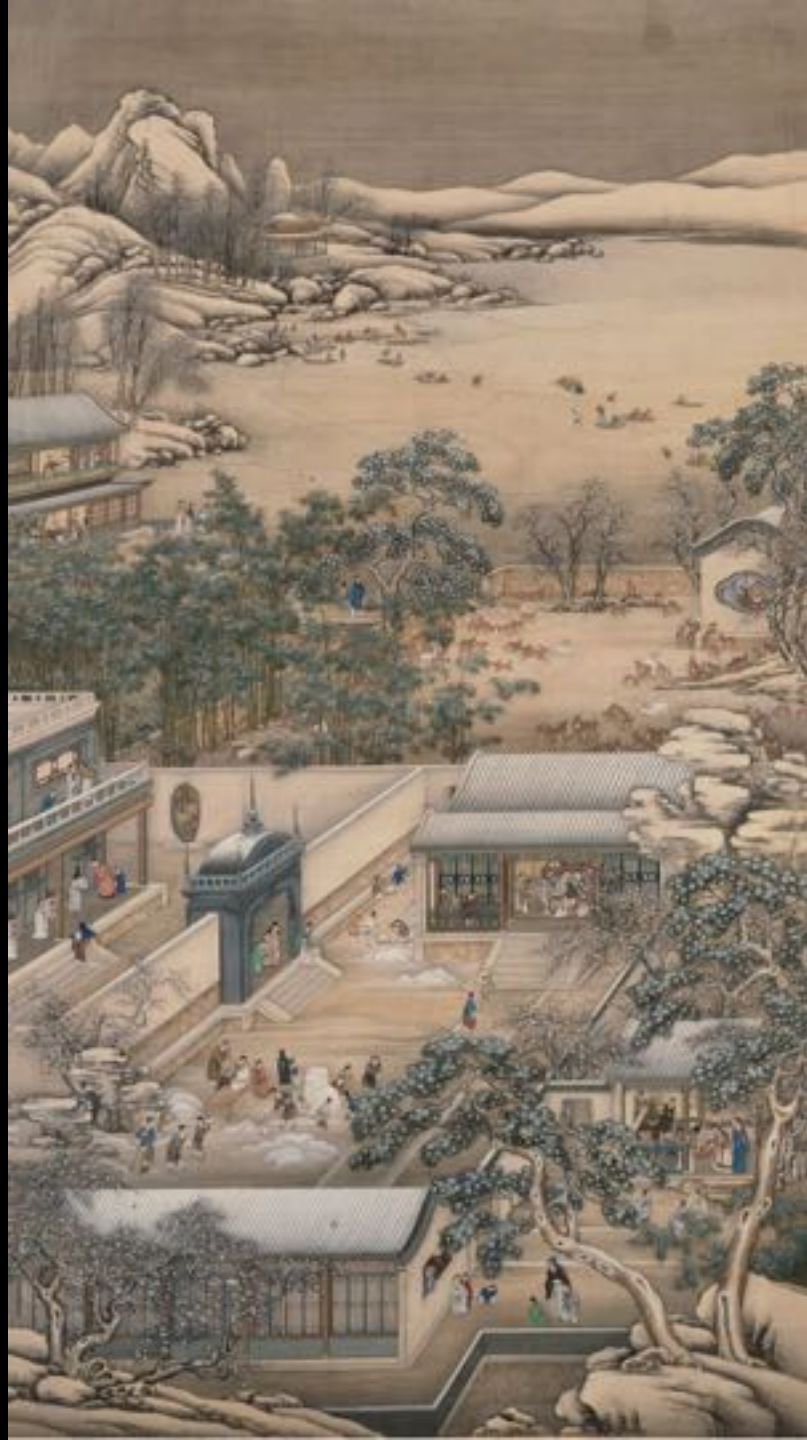
何来潇洒清都客，逍遥为爱云烟碧。筠篮满贮仙岩芝，芒鞋不踏尘寰迹。人世蓬莱镜里天，霞巾彷彿南华仙。谁识当年真面貌，图入生绡属偶然。长春居士自题。(간체임)

어디에서 이처럼 소쇄한 하늘의 나그네가 왔는가,
자유로이 노니는 것은 푸른 구름과 안개를 사랑해서이네.
대바구니에는 신선 바위의 영지를 가득 담고,
짚신은 속세의 자취를 전혀 밟지 않네.
인간 세상 또한 봉래와 같아 거울 속 하늘인 듯하고,
노을빛 두건 쓴 모습은 마치 장자 같은 신선을 방불케 하네.
누가 그 옛날의 참모습을 알아보겠는가,
비단 위에 그려진 것은 다만 우연에 맡겨진 것일 뿐.
장춘거사 스스로 쓰다.





乾隆朝画珐琅蝠耳百鹿尊



雍正十二月行樂圖

나란히 달리는 암사슴과 수사슴을 쏘니
 화살이 암사슴을 관통하고 수사슴에 꽂혔네
 십 년 전 일을 그림으로 담아 즐기고
 오늘날 다시 보니 거의 믿을 수가 없네
 왕년의 웅장한 마음은 말달리듯 사라졌으나
 좋은 징조로 말할 것 같으면 간혹 명중할 때가 있네
 상문(爽文)을 이미 묶고 대전(大田)을 획득하니
 한 번에 두 마리를 잡음이 실로 이와 같네

